

만프레도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평과 건축의 실천에 대한 사상의 연구

이 상 헌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주제어 : 만프레도 타푸리, 계급건축, 이데올로기 비평, 건축적 실천, 비판적 역사

1. 서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혹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현대사회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건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비평은 건축을 단순한 스타일이나 형태창작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 생산 과정의 하나로 이해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현대건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근대 아방가르드 건축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시작되었다. 근대건축의 이데올로기 비평에 관한 독보적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는 이태리의 막시스트 건축사가인 만프레도 타푸리이다.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평은 근대건축을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관계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건축이 처한 혼돈스러운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평은 현실 속에서 건축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거나, 오히려 건축 실천의 진보적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타푸리는 <건축의 역사와 이론>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계급에 바탕을 둔 정치경제학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계급 건축(해방된 사회를 위한 건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건축에 계급적 비평을 도입하는 것뿐이다.”¹⁾

그 결과 중요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데올로기 비평은 정치적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건축의 영역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건축적 염세주의, 또는 형태예술로서의 건축의 특질을 무시하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데올로기 결정론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타푸리의 현대건축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건축적 실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히려 건축지식인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건축의 개념, 즉 형태의 창조자 또는 사회에 형태

1) Manfredo Tafuri,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Harper and Row, 1980, Note on the Second edition

를 부여하는 메시아적 존재로서의 건축가의 개념에 대한 집착에 있다. 타푸리의 현대건축의 이데올로기 비평은 이러한 편협한 건축의 개념을 벗어나서 건축의 개념을 형태 창조로부터 생산의 개념으로 넓힐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건축적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건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와 그 속에서 타푸리가 제기하는 현대사회에서 가능한 건축적 실천의 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현대문화와 이데올로기

건축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현상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는 막시즘의 용어에서 물질 기반과 구분되는 사회적 상부구조의 하나로 정의된다. 막스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주어진 역사적 범주에서 모든 개인이 사회를 인식하는 사상과 가치 또는 이미지를 말하며 이것은 그 사회의 생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말한다.)그 사회의 내적 모순을 감춤으로써 기존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²⁾

물론 상부구조와 물질 기반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록 초기의 막시즘은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지만, 알투제와 그람치 같은 후기의 막시스트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막시즘을 재해석하면서 이러한 결정론을 거부하고 각각의 수준은 상대적 자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수정된 관점은 현대문화이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문화의 현상을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입장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막시스트 이론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루카치는 모더니스트 문학은 자본주의 상황에서의 부르조아의 불안을 인간의 필연성으로 영속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모더니즘 문학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다. 그는 모더니즘의 거짓의식에 대해 사회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리얼리즘을 옹호하였다.³⁾ 이러한 주장에는 이데올로기와 예술에 관한 몇 개의 중요한 가정이 전제된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는 두 개의 계급적으로 구별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하나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이고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이다. 둘째, 예술은 계급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덮으려는 거짓의식에 반해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는 거짓의식이 아니다. 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로서 더 이상 계급의 지배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정식화는 물론 이후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같이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과 미적 차원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에 의해 비판되었다. 예를 들면 막시스트 비평가인 테리 이글튼은 하나의 예술적 텍스트는 이미 존재하는 계급이데올로기를 반영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양식을 통해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이러한 쟁점과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에는 계급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며 예술은 그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예술에 대한 -외부의 특정한 계급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든지 혹은 그 자신의 미학적 차원에 의해서든지- 진정한 예술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이 분야의 이론가가 대부분 공유하는 것이다.

3. 건축과 이데올로기 비평

건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좀 늦게 발전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대건축을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서 분석한 최초의 역사학자는 타푸리이며 이후 포르피리우스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 건축의 이데올로기적 비평은 개념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타푸리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건축은 그

2) Karl marx, *The Marx-Engles Reader*, New York and London, 1978, p.4 -5 참조

3) Georg Lukacs, *Realism in our Time*, New York 1964 참조

4) Terry Eagleton, *Criticism and Ideology*, London, 1982 참조

지배 이데올로기인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의 아방가르드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구성하려는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이며 따라서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유토피아적 아방가르드가 처하게 된 위기는 그 본질이 그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본주의에 의해 도입된 이데올로기, 즉 거짓의식이었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타푸리는 순수한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며 미래의 건축에 남겨진 것은 유토피아가 없는 순수한 형태, 즉 그가 말하는 순수 건축(Pure architecture)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이와 같은 건축에서의 이데올로기 비평은 프롤레타리아 건축이나 리얼리즘과 같은 대안적 계급 건축의 가능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분야와는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앞서 먼저 건축을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타푸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그의 책에서 그는 단지 건축적 사고와 이상을 언급할 뿐이다. 물론 건축적 사고는 믿음의 체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상부구조적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포르피우스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담론적 행위로서 건축은 사회적 신비화에 의해 그 일관성과 규범성을 획득한다. 다시 해서 건축담론은 체계모니적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의미를 자연화하고 현상을 영속화하는 표상의 형태인 것이다.... 건축 담론은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투명하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로서의 건축은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건축은 건물에 대한 분산된 지식이나 디자인 개념뿐 아니라 상징화의 총체적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현실은 건축에 일련의 규범과 생산기술을 제공하지만 역으로 건축은 현실을 자연스럽게 영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미지의 일관성을 현실에 제공한다.”⁶⁾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막시즘에서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계급없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계급건축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 할까. 포르피우스는 이에 대해 건축가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화적 구조화의 과정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가의 존재이유가 사회적 생산관계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권력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⁷⁾

타푸리는 자신의 글에서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책을 행간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건축의 두 가지 특성 때문인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건축의 도시에의 의존성이다. 현대 건축은 도시 구조 안에 실현되는 데 도시는 자본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장소이다. 다시 말하면 건축의 외부는 바로 물질적 도시 그 자체이며, 따라서 도시설계나 플랜닝과 함께 건축은 경제의 논리가 관철되는 직접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타푸리가 다른 예술에 비해 건축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그의 <건축과 유토피아>가 주로 도시와 건축과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둘째는 건축의 생산의 규모와 다른 예술에 비해 크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경제 사회적 조건에 더 많이 의존하며, 따라서 건축은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것이 타푸리가 건축을 하나의 제도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그는 <건축의 이론과 역사> 서문에서 “이 책은 건축이 하나의 제도(Institution)로서 지금까지 의미해왔던 바를 깨닫게 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⁸⁾

4. 이데올로기 비평의 인식론적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비평에 내재하는 몇 가지 인식론적 문제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nd Critique of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p. 16

7) Demetri Porphyrios, 앞의 글 p. 18

8) Manfredo Tafuri,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Harper and Row, 1980, note on the second edition

5)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Cambridge, Mass, 1976 를 보시오.

6) Demetri Porphyrios. "On Critical History" Architecture

우선 철학자인 토마스 로렌스가 지적했듯이 만일 모든 건축적 사고가 기존의 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라면 어떻게 왜곡되지 않은 현실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안하는 자기모순을 범하지 않으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왜곡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다.⁹⁾ 그래서 로렌스는 타푸리가 인식론적 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데올로기적 결정론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¹⁰⁾

로렌스의 지적대로 타푸리가 이데올로기적 건축에 대한 진정한 건축의 대안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타푸리의 경우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것은 “현실은 실천적 행위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낸다는 지식의 실천적 개념”의 원리”에 의해서지 거짓에 대한 진실한 모델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의 위선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진실과 위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적 이데올로기도 진실과 대비되는 거짓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연화된 수사학이다. 건축적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 역할인 것이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타푸리의 정의는 알튀제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유사하다. 알튀제에 의하면 모든 사회는 이데올로기에 결박되어 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부과되어 있는 사회구성체의 객관적 구조다. 알튀제의 설명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당화되어 실천되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풀기 어려운 근원적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알튀제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서 그리고 이론적 생산의 형태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은 사회구성체의 대리인들이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인식과 표상의 형태를 변

화시키기 때문이다.¹³⁾

타푸리와 포르피우스도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과정을 드러내는 역사가의 비판적 실천을 강조한다. 비판적 역사가의 역할은 신화가 관습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화화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⁴⁾ 타푸리는 그의 “역사적 프로젝트(The Historical Project)에서 역사가의 임무를 ”겉보기에 완벽히 짜여진 현실을 흔들고 뒤집은 후, 지배전략의 복잡성을 숨기는 그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제거한 후 생산양식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¹⁵⁾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점에 도달한다. 비판적 역사가는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오류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데올로기 비평의 역사방법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르피우스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판적 역사는 그 주제에 의해 정의되는 담론 영역의 밖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오직 이 관점에서만, 즉, 비판적 역사가가 그가 분석하는 담론적 상황의 밖에 있는 한, 비판적 역사는 객관적 분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판적 역사가가 밖에 있다는 것은 그가 분석하는 건축이 의미를 갖게 되는 실천적, 도구적 영역의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가 연구하는 건축을 지배하는 개념, 표상, 이미지 행동방식, 제스처, 태도 그리고 실천적 규범 밖에 있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초월적, 초역사적 객관성이 아니라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객관화 한다는 점에서의 역사적 객관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가의 역할은 이데올로기의 감추어진 영역을 드러나게 하여 의식의 자유상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것은 권력이나 유포아 혹은 의심의 상태가 아닌 이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¹⁷⁾

9) Tomas Lolrens, "M. Tafuri: Neo-Avant-Garde and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51, 1981. p.90

10) 앞의 책, p.91

11) Demetri Porphyrios, "On Critical History" in *Architecture, Criticism and Ideology*, New Jersey, 1985, p. 19

12)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apparatus*

13) Norman Geras, *Althusser's Marxism: An Assessment, in Western Marxism*, A Critical Reader, London, 1978, p. 256

14) Manfredo Tafuri, "The Historical Project," in *The Sphere and Labyrinth*, Cambridge, Mass, 1988, pp.19-22를 참조하시오

15) Manfredo Tafuri, 앞의 글 pp. 19-20

16) Demetri Porphyrios, 앞의 글

이러한 비판적 역사가의 위상은 타푸리가 말하는 “역사서술의 노동”을 잘 설명해 준다. 존 오크만은 타푸리의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서술의 노동은 임시적이고 끝나지 않는 작업이다. 파편들이 자율적 기호로 굳어지지 않도록 모든 구성은 다시 몽타주되어야 하고 역사가는 그가 재구성한 언어가 그 자체로 제도화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한다.”¹⁸⁾

필자가 보기에 타푸리는 이데올로기 비평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타푸리의 “역사서술의 노동”은 마치 정신분석학과 같이 끊임없이 돌아가며 지속되는 자기모순적 과정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타푸리는 아방가르드 건축의 혁명적 역할을 비판적 역사가의 끝없는 감시와 드러냄으로 대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논했던 현대건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속에서 건축적 실천의 문제에 도달한다. 즉 진보적 건축의 불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사가의 비판적 실천”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5. 제임슨의 비평과 비판적 건축의 대안

이러한 타푸리의 분석에 대해 프레드릭 제임슨은 현대사회에서 진보적 건축적 실천의 불가능성을 진단하는 타푸리의 폐시미즘은 그의 이론의 발생적 구조가 갖는 형식적 필연성(a formal necessity of the generic structure of his text)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타푸리의 관점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종말에 대한 막시스트적 해석인 문화산업의 개념과 같은 출구가 없는 닫혀진 시스템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제임슨은 닫혀진 시스템으로써의 역사에 대한 전망에 바탕을 둔 역사의 변증법적 해석은 항상 필연성을 상정하며 실패의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제임슨의 비평은 타푸리가 실제로 말하는 바를 넘어서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푸리는 건축의 운명을 말할 뿐이지 세계 시스템의 운명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타푸리에 대한 비평과 함께 제임슨은 그람치적인 대안(Gramscian alternative)을 제시한다. 제임슨은 자신이 제시하는 그람치적인 대안(Gramscian alternative)을 “제도 속에서의 장기적 행군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권력의 전부를 획득하느냐 아니면 전부를 잃느냐 하는 전통적인 레닌주의적 전술이 아닌 점진적인 위치 전을 제안하는 것이다.²⁰⁾ 그는 제도 속에서의 그람치적인 장기적 행군의 전략으로써 진지론(enclave theory)을 제안하는데 그 예로서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이태리의 레드 콰터를 언급한다. 그는 “이 포켓은 점차 그 영향력을 외부로 넓힐 것이며 초기의 이식의 상태에서부터 퍼져나가 점차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점차 침식해 갈 것이다.”²¹⁾ 그리고 그 제안의 근거로서 역설적이게도 볼로냐의 레드 콰터에 대한 타푸리의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고 있다. 타푸리는 <Modern Architecture>에서 볼로냐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²²⁾

“이 역사적 중심지와 볼로냐의 경험에 대한 논쟁은 건축 혹은 도시적 제안은 분명한 정치적 상황의 밖에서 시험될 수 없으며 오직 공공적 통제의 구조가 개선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건축가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전통적 패턴과 발주 형식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태리 노동운동이 역사적 시험대에 오른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다. 이것은 엄청난 반항을 일으킬 것이고 심지어 이태리 밖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제임슨은 타푸리가 말하는 사회적 관계를 물리적 형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타푸리는 그의 글에서 물리적 형태가 사회관

17) 앞의 글

18) Joan Ockman, Postscript: Critical History and Labor of sisyphus, in Architecture Criticism Ideology p. 183

19) Fredric Jameson, "Architecture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in Architecture Criticism Ideology pp.65-68

20) 앞의 책. 69

21) 앞의 책

22) Manfredo Tafuri, Modern Architecture, New York, 1979, p.322

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레드 콤포에서 노동자들의 운동과 통제와 관리를 위한 공공적 구조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제임슨의 제안은 오히려 르 꼬르뷔제의 유명한 “건축이나 혁명이나, 혁명은 (건축에 의해) 피해질 수 있다”는 슬로건에 의해 집약되는 유토피아적 근대건축 운동이 가졌던 문화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타푸리가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주의의 무용함이며 타푸리가 유토피아의 비전이 없는 순수한 건축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제임슨의 제안은 실패한 아방가르드 프로그램을 단순히 다시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람치적인 헤게모니의 개념이 유토피론과 관념론 사이의 모든 구분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임슨은 결국 르 꼬르뷔제와 다르지 않은 관념주의자, 문화주의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임슨이 지적하듯 그람치가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상부 구조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통 마스주의 이론을 수정하고, 경제적 모순이 반드시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경제결정론을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람치가 말하는 상부 구조적 헤게모니란 단순히 대안적 관념이나 생각과는 다른 것이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공식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보다도 훨씬 분명한 사회적 체험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올바르게 설명했듯이 헤게모니는 단순한 의견의 수준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실천과 사회적 기대를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제임슨의 주장에 대한 카라한의 응답은 매우 흥미로우며 그람치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데르토의) 일상생활의 모델은 건축에 매우 유용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의식(Ritual)과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러므로 아마도 그람치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이것과 관련되는 건축가의 여덟 가지 가능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²⁴⁾

1. 애드보커시 플래닝에 참여
2. 커뮤니티 디자인에 참여
3. 다국적 기업에 의한 천연자원의 착취에 반대
4.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5. 태양열과 같은 덜 파괴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기술의 개발에 참여
6. 건축가의 조직화와 같이 노동력을 재 정의하는 일에 참여
7. 과거의 스타일의 환상보다는 보다 진보된 기술의 표현
8. 건축의 지역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의 형태적 문맥적 이슈에 대응하는 것.

물론 이러한 카타고리에는 예술로서의 건축과 기술 혹은 비즈니스로서의 건축을 구별하지 않았고 각각의 카타고리는 형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람치적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형태적 제안보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의 건축의 실천, 즉 조직화와 관리, 프로그래밍과 컨트롤, 기술의 개발 등에서 진정한 헤게모니 투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6. 타푸리의 건축적 실천의 개념

여기서 타푸리의 건축적 실천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 가보자. 타푸리는 그의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해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토피아적 대안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계급건축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순수하게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는 <건축과 유토피아>에서 다음과 같은 쓰고 있다.

“건축에 대한 반성은 ...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건축행위의 조직가 기술자 또는 계획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데올로기의 체계적인 비평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한 장애 불과하다.”²⁵⁾

23) Raymond Williams, *Problems in Materialism*, London, 1980, p 38

24) Beyhan Karahan, "Some Observations on Writing and Practice in Architecture History Criticism", p. 92

25)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p. 182

바로 이데올로기 비평의 다음 장에 지금까지 형태 창조자로서의 건축가의 개념에 의해 간과되어 왔던 그람치적인 대안이 있다. 타푸리는 <건축과 유토피아>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건축에 부여된 새로운 과제는 건축을 벗어나는 것이다.”²⁶⁾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건축의 개념이 존재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생산의 과정과 프로그래밍, 조직화와 관리를 포함하는 건축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이데올로기 비평을 넘어서서... 건축문화는 이러한 실천의 영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건축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역동성에 의해 성취되는 단계에 맞추어 노동계층을 조합과 정치적 결사로 조직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특정한 순간을 일반적 디자인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데 있다.”²⁷⁾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디자인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건축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개념 속에서 타푸리는 해방된 사회를 위한 디자인이 제안하는 유토피아적 희망을 완강히 부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타푸리가 건축적 실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방된 사회를 위한 디자인에서의 희망을 부정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건축가 대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떤 고안을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생산을 하면서 단 순히 건축을 하기만 하면 된다. 훌륭한 장인으로서 몇 개의 요소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건축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²⁸⁾ 이러한 건축적 실천의 개념은 형식적 규범로서의 건축이 사회적 목적과 직접 연결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물로서의 건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타푸리는 건축의 자율적 지식의 영역을 부인하지 않았고 건축언어자체의 영역에서 탐구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건축의 역사를 노동의 사회적 분화라는 역사의 범주로 집어넣는 일은 결코 저속한 막시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건축자체의 특성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프로젝트의 선택의 진정한 의미를 ...생산적 변환의 역동성 속에 위치시킬 수 있는 읽기를 가능케 함으로서 이러한 특성은 강조될 것이다.”²⁹⁾

여기서 우리는 건축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건축의 범위의 문제에 이르게 된다. 즉, 어떤 건축을 선택할 것인가.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거세한 채 훌륭한 장인으로서 건축을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행위로서의 건축적 실천을 할 것인가.

덧붙여, 건축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평은 일부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결정론이 아니라, 순수한 형식의 차원에서 건축을 탐구하는 것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두 레벨은 건축을 이해하는 상호보완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의 이데올로기 비평은 건축의 형식적 문제에 대해 다만 침묵할 뿐이며 이러한 침묵 속에 오히려 건축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참된 진지함이 자리하는 것이 아닌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Beyhan Karahan, "Some Observations on Writing and Practice in Architecture and Critique of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2. Demetri Porphyrios. "On Critical History" Architecture and Critique of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New Jersey, 1985
3. Fredric Jameson, "Architecture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Architecture and Critique of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26) 앞의 책, ix

27)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pp. 171-172

28) Manfredo Tafuri, "There is no criticism, only history, in DBR no. 5, p.11

29) Manfredo Tafuri, "The Historical Project," in The Sphere and Labyrinth, Cambridge, MIT Press, 1988, p. 15

4.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Apparatu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5. Manfrdo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Cambridge, MIT Press, 1978
6. Manfrdo Tafuri,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 1979
7. Manfredo Tafuri, "The Historical Project," in The Sphere and Labyrinth, Cambridge, MIT Press, 1988
8. Manfredo Tafuri, "There is no criticism only history, in Design Book Review no. 5,
9. Manfredo Tafuri,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Harper and Row, 1980
10. Joan Ockman ed, Architecture and Cirtique of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11. Joan Ockman, Postscript: Critical History and Labor of sisyphus, in Architecture Criticism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12. Raymond Williams, Problems in Materialism, London, 1980,
13. Terry Eagleton, Criticism and Ideology, London, 1982
14. Tomas Llorens, "Manfredo Tafuri; Neo-Avant-Garde and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51, 1981.

Manfredo Tafuri's Ideological Criticism in Architecture and the Problem of Architectural Practice

Lee, Sanghun

(Assistant Professor, Konkuk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Abstract

Manfredo Tafuri's Ideological criticism in architecture has opened a new horizon to interpreting architecture in modern capitalist architecture for it views architecture not just as a style or formal invention, but in terms of socio-economical process. It offer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 chaotic situa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historical meaning modern architectural movements in relation with capitalistic development.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as architectural pessimism which does not allow any possibility for progressive architectural practice. It was also criticized of epistemological problem of how one could be outside ideology without assuming true consciousness against false consciousness of ideology. Tafuri solves this problem by assuming Althusserian activist concept of knowledge and suggest the concept of labor of writing history of critical historians, instead of a design for utopian society, as a possible critical architectural practice. However, I argue that ultimately ideological criticism does not deny architectural practice itself, nor researches on formal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The problem lies rather in the architectural intellectuals' attachment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architect as a form giver to the society. By rejecting this myth and broadening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practice from design to production, we can find that Ideological problem is not architectural pessimism, but rather it opens up a new way of approaching to the problem of architectural practice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Keywords : Manfredo Tafuri, Class Architecture, Ideological Criticism, Architectural Practice, Critical History
